"모태범·이상화 선수처럼" 17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 실내빙상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에도 스케이트 '열풍'

풍암동 실내빙상장 하루 400여 명 '북새통'

동계올림픽 금메달 낭보에 평소의 3~4배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의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낭보가 잇따르면서 광주에서도 '스케이트 열풍'이 불고 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광주실내빙상장은 겨울철 스케이트 마니아와 함께 스피드 스케이팅 영웅들에 매료된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이 한데 몰리면서 연일 북새통이다.

17일 오후 광주 실내빙상장에서는 수 백여명의 시민들이 가로 30m, 세로 60m의 빙판 위에서 차가운 입김을 내뿜으며 스케이트를 지치고 있었다. 채 열 살도 안된 어린이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입장객 수는 350여 명, 전날에는 424명이 다녀갔다. 동계올림픽 개막 전 5일간 평균 입장객 수는 12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밴쿠버 금메달'이후 3~4배나 늘어난 수치다.

방학을 맞아 친척집에 내려온 김혜실(여·41·경기도 안산시)씨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에 매료된 작은 딸(13)이 '스케이트를 타러 가자'고 졸라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면서 "딸이 김연아 선수 팬인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승현(32·서구 농성동)씨는 "TV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모습을 보고 반해 휴가 기간동안 스케이트를 배워 보려고 친구들과 함께 찾았다"며 "직접 와서 배워보니 너무 재밌다. 때마침 우리나라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남·여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져 신난다"고 했다.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정빙기(整氷機·스케이트장에서 얼음 표면을 고르게 하는 기계)를 이용한 빙질(氷質) 관리 횟수도 잦아졌다. 평소에는 하루 평균 5회 가량 빙판 보수작업을 했는데, 지난 16일부터는 7회 이상 얼음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실내빙상장 직원 김삼겸(41)씨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입장객이 하루 평균 100여 명에 불과했는데 동계올림픽 낭보이후 하루 35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입장객이 많아 빙질 정리 횟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청소도 수시로 하고 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액

전남대 76만~136만원
조선대 104만~177만원

지난 5년간 전국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연간)이 각각 165만원, 12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조선대의 경우 계열별로 최저 104만원에서 최고 177만원까지, 전남대는 76만원~136만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 대학 모두 의대와 공대의 인상폭이 가장 컸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4~2009년 국내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42만원으로 5년 전의 577만원에 비해 165만원(28.6%) 올랐다. 국·공립대의 경우, 5년 전 290만원에서 419만원으로 129만원(44.5%)이나 상승했다.

조선대 의치학계열의 경우 797만원에서 974만6천원으로 177만6천원이, 공학계열은 628만4천원에서 768만4천원으로 140만원이 인상됐다. 또 인문·사회계열은 469만원에서 573만4천원으로 104만4천원이 올랐다.

전남대 등록금 인상폭은 의학계열(136만8천원), 예능계열(100만4천원), 공학계열(100만2천원), 자연계열(90만4천원), 인문·사회계열(76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양 대학의 5년간 등록금을 비교하면, 액수 면에서는 조선대가 계열별로 30~40만원 가량 많았으나 인상률에 있어서는 전남대가 26%로 조선대(22%)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도 사립대의 등록금 증가 액수는 국·공립대보다 많았지만, 인상률에서는 국·공립대가 사립대를 앞섰다.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기침체를 감안해 지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전국적으로도 2009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과 국·공립 모두 최저 수준인 0.5%를 기록했다.

전국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에서는 사립대와 국·공립대 모두 의학과 공학계열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사립대는 의대와 공대가 각각 780만원에서 1천4만원으로, 653만원에서 842만원으로 올랐다. 국·공립대도 의대가 462만원에서 676만원으로, 공대가 300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인상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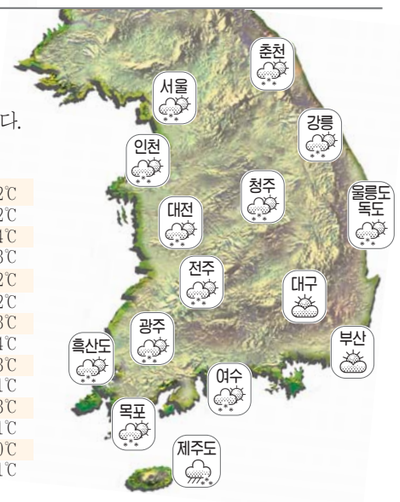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6분 / 해짐 18시 17분 — 달뜸 08시 50분 / 달짐 22시14 분

흩날리는 눈발

새벽 한때 눈이 오다가 개겠다.

광 주	흐리고 가끔 눈	-2/2℃
목 포	흐리고 가끔 눈	-2/2℃
여 수	흐리고 가끔 눈	-1/4℃
완 도	흐 림	-1/3℃
구 례	흐리고 가끔 눈	-3/2℃
해 남	흐리고 가끔 눈	-2/2℃
장 흥	흐 림	-2/3℃
고 흥	흐린 뒤 맑음	-3/4℃
순 천	흐리고 가끔 눈	-2/3℃
영 광	흐리고 가끔 눈	-3/1℃
진 도	흐리고 가끔 눈	-1/3℃
전 주	흐리고 가끔 눈	-3/1℃
남 원	흐리고 가끔 눈	-4/0℃
흑산도	흐리고 가끔 눈	-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북서~북	2.5~2.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4:29 / 16:40	09:40 / 21:56
여수	11:16 / 23:40	05:02 / 17:21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날 씨						
최저/최고	-3/6	-2/10	0/12	1/13	2/14	4/14

'롯데라면' '알뜰라면' 합성조미료 사용 논란

대형마트 등에 이른바 '자체상표부착상품(PB)'으로 나온 일부 라면제품에 합성 조미료 성분인 MSG(글루탐산나트륨)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등에서 PB 상품으로 취급하는 '롯데라면'과 홈플러스의 PB 제품인 '알뜰라면' 등에 MSG가 쓰이고 있다.

MSG는 그러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분류기준에 의해 사용 가능한 식품에 해당돼, 일부 PB 라면이 MSG를 첨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MSG의 안정성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MSG=쓴맛을 완화하고 감칠맛을 더해주는 합성조미료로, 많이 섭취하면 메스꺼움과 무력감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현장출동 119대원에 폭언하면 형사처벌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와 재해를 비롯한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원동기 면허 취득 간소화 경찰서 '원스톱 서비스'

오는 24일부터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모는 데 필요한 원동기 면허를 지정병원과 운전학원, 면허시험장이 아닌 경찰서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7일 "원동기 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신체검사와 안전교육, 시험 등을 경찰서에서 모두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촌에서는 농번기(3~11월)에 이동 출장시험을 보거나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